

## 민 요

### 차 례

1. 애기 얼르는 소리
2. 검질매는 소리
3. 물질하는 소리
4. 잡타령
5. 방에 짚는 소리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는 행정구역상 1리와 2리로 나뉘어져 있다. 1리는 중산간 마을로서 예전에는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현재는 밀감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위주의 지역이다. 2리는 '공천포'라고 하는 바다 마을로서 신례1리에서 분리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신례1리 지역에서 걸어서 30분이면 도착할만큼 두 마을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신례2리가 예전부터 '물질'이 생계 수단이고 생각보다 두 마을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때가 오래되지 않은 만큼 두 마을의 차이는 큰 편이다.

제주지역은 크게 중산간 마을과 바다 마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노동요는 존재한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이나 바다 마을이 환경과 지형이 다른 만큼 노동요의 성격도 다르다. 중산간 마을의 노동요는 농사와 관련된 노래가 많고 바다 마을에는 '물질'과 연관된 노래가 많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신례1리는 노동요- 조 발리는 노래, 맷돌 가는 노래, 검질 맷때 부르는 노래 등을 중심으로 채집하려 하였고, 신례2리는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중심으로 채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생각처럼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신례1리 이장님 말씀에 따르면 신례리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몸가짐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나간 경우가 있어서 젊은 시절에는 고향과 떨어져 지내야했다고 하였다. 이에 옛날이야기나 노래들이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 1. 애기 얼르는 소리

### ① 왕이 왕이 자랑

우리애기 재워주라  
느네애기 재워주마  
저래가는 금동개야  
우리애기 재워주라  
느네애기 재워주마  
어질다 어질다 우리애기 어질다

<제보자: 양순열(여·70세)>

### ② 자장~ 자장~ 자장~

우리애기 줌도 잘 재워줍서  
검등개  
자장 자장 우리애기  
잘재워줍서

할머니 젓은 어덜어덜 합니까  
어진당이 자랑아 신선당이 자랑아  
저리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잘 재워줍서

우리애기 꿀병먹어 줌 재워줍서  
자랑 자랑 자랑  
거기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자랑자랑 우리애기  
좀도 잘재워줍서  
할머니 젓은 케영케영  
꼭 재워줍서  
자장자장자장  
우리애기잘도잔다

<제보자: 현신봉 (여·85세)>

- ③ 자랑자랑 똥이자랑  
우리애기 자는소리  
놈의애기 우는소리  
어서자라 어서자라  
절에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재워뒤라  
느네애기 재워두마  
아니 재와두민  
꿇밥고메 앞밥고메

<제보자: 김애일 (여·70세)>

- ④ 서술에가는 배는  
어어아~ 호  
어어아~ 호 아~  
어기여차~  
어야도하야 어야도하야  
요동산은 나디새어  
어야도하야  
자는애기 일어나든  
오골오골 일어나라  
어야도하야 어야도기야  
어야두름아  
자는애기 일어나든  
오골오골 일어나라

<제보자: 김춘자 (여·77세)>

## 2. 검질매는 소리

- ① 검질짓곡 골너른 밧디  
앞명에랑 들어오고  
뒷명에랑 물러나가라  
아~ 예~ 아~ 예~  
에헤요~ 에헤요~

<제보자: 현신봉(여·85세)>

- ② 검질짓곡 올리간다 밧디  
아~ 아~ 야~

에헤야~ 에헤요~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오라  
아~ 야~ 아~  
에헤야~ 에헤요~

<제보자: 김민규 (여·76세), 김춘자 (여·77세)>

### 3. 물질 하는 소리

①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흔저 우리 배랑 들어오랑  
생부고동 조은술 넘어간다  
생부구술 주은구술 넘어간다  
이어라 저어라  
유물아래 생부고동  
걸려건만은 높은 낭개 열매로다  
이어도사나 어이 이어도사나  
우리배는 잘도 간다  
놈의 배는

<제보자: 현신봉(여·85세)>

②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서른넘영 날 아니나시민  
강원도 바당에 오란 요고생 허젠 험니까  
어기여차 잘하자 올라간다 도꾸새야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우리어멍 서른넘영 날아나시민  
헤너질허멍 요고생 험니까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서른넘영 날 아나시민  
강원도 바당에오란 요고생 안하고  
우는 아기 젓을 주나  
병든 남편 약을 주나  
요로케 서루게 나는 삽니다  
해너벌영 요돈 벌영  
조반전 남편술값 허당보난  
남편이 아파서  
이렇게 나는 고생하멍 삽니다.

<제보자: 현갑추 (여·82세)>

#### 4. 잡타령

- ① 앞니~ 앞니~ 목노래야  
정월 솔날 속살 입마은  
이월 내숙에 내전놓고  
삼월 삼구나 서랄망  
사월 합살에 오솔호야  
오월 남쪽 놀러나비  
유월 목탕에 춤을 추니  
칠월 홍맹이 팔러와 무얼  
팔월 홍상 달 밝으니

구월 국화 고등마영  
시월 단풍에 잎 떨어지니  
동지네 설달 기나긴 밤  
내홀로 나 이해야  
얼씨구 기녀가 좋네  
앞니~ 앞니~ 목노래야

<제보자: 양기만 (남 · 74세)>

## 5. 방에 찢는 소리

① 이여~ 이여~ 이여도하라  
새쿨방에 새글럼져  
이여도하라  
호흥 호흥

<제보자: 김민규 (여 · 76세)>

■조사자: 이동운(00), 강미희(04), 고희준(05), 고성혁(05), 박숙경(05)